

미주 모퉁이돌선교회 기도제목(2023.3.13)

1. 북한을 위한 기도/ 북한에서 열 환자 발생으로 모임이나 집회를 금지하는 준 안전지역 80 개 구역에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에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말씀을 전할 통로가 하루속히 열리게 하소서!

“양강도 인민반장 모임에서 ‘쌀 공급이 적어 굶는 세대가 많고, 대통령도 빈민 구제를 못한다’라고 발언해 보위부에 잡혀갔습니다. 주민 70%가 하루 1 끼를 겨우 먹으며 굶주림을 버티고, 산골 농촌 온 가족이 먹지 못해 집에 드러누워 죽기만을 기다리는 세대가 적지 않습니다. 또 열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 전국적으로 비상 방역을 한층 더 높여 일절 모임이나 집회를 금지하는 준 안전지역이 평소 17 개 시·군이던 것이 1~2 월에 들어서 80 개 구역으로 늘어났으며, 열이 난다고 담당 의사에게 알려 주면 확인하고 그 가족은 일절 바깥출입을 금지하고, 아파트나 한 인민반에서 여러 세대가 발생하면 그 지역을 봉쇄 차단하고 있습니다.” 2 월 말에 탈북 성도가 받은, 날로 심각해지는 북한의 형편입니다.

다니엘 9 장 18~19 절에 “나의 하나님여 당신의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함과 당신의 이름으로 일컫는 그 성읍을 보소서 우리가 당신 앞에 탄원을 올리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에 근거한 것이 아니요 오직 당신의 큰 긍휼에 근거한 것입니다. 여호와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용서하소서 여호와여 들으시고 행하시며 미루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여 당신 자신을 위하여 행하소서 이는 당신의 성읍과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이름으로 일컫기 때문입니다” 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북한 주민 70%가 심각한 식량난으로 고통받고 산골과 농촌 주민이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참담한 소식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간구하오니 황폐한 저 땅과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감염자들이 늘어나 80 개 이상의 구역이 봉쇄되어 고통하는 저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루빨리 북한의 문이 활짝 열려 필요한 식량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고 북한 주민이 하나님을 자유로이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2.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이스라엘 선교사와 그 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비자가 발급되어 복음의 복음을 제한받지 않고 전파함으로 주께 돌아오는 유대인의 수가 총만케 하옵소서!

“이스라엘 선교센터에 사모 히브리어반 강사로 섬기는 선교사 사모님이 계십니다. 그 가정에 히브리대학 2 학년에 재학 중인 딸이 비자 갱신을 받지 못해 1 주일 안에 떠나라는 추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최근 집권한 네타냐후가 극우 민족주의 정당과 연정하면서 비롯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기독교인을 압박하는 입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독교인의 이민 법규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내 기독교인에 대해 비자 발급, 사회보장, 세금혜택 등에 불이익을 주고 있어, 기독교인에 대한 탄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유대인의 마음이 예수님에 대해 열린 사람이 많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두려워서 기독교인에 대한 강력한 압박을 펼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여 기도가 필요합니다.” 현지에서 선교사가 보내온 기도 제목입니다.

사도행전 6 장 7 절에 “이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자라나며 제자들의 수가 예루살렘에서 크게 불어났고 제사장들의 큰 무리도 이 믿음에 순복하였다” 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독교인에 대한 탄압이 강화되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올려드리며 간구합니다. 모든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기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유대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복음에 가려진 저들이 눈이 떠져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박해받는 유대 기독교인에게 성령의 총명한 능력을 부어 주시고, 믿음의 무릎이 연약하지 않도록 도우사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으로 살아 계신 하나님을 증거케 하옵소서. 특별히 선교사와 그 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비자가 발급되어 제한받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전파함으로 주께 돌아오는 유대인의 수가 총만케 하옵소서.